

##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사례연구<sup>†</sup>

김헌주<sup>1</sup> · 김경미<sup>2</sup>

<sup>12</sup>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접수 2015년 7월 31일, 수정 2015년 9월 30일, 게재확정 2015년 10월 19일

### 요약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학업성취와 역량개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되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실제 필요가 무엇이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과, 비교과과정 구성 및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지난 5년간 H대학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5년간 설문 분석한 결과 첫째, 교양과목의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다. 둘째, 인성교육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셋째, 시간관리 분포와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주요용어: 교양교육과정, 교육의 질제고, 대학생활만족도, 인성교육과정, 학업성취도

### 1. 머리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 사회 특성이 무르익어 가면서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으로, 개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학업성취와 역량개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됨과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우려와 과거 교육에 대한 자성의 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대학생의 학업성취향상 방안들이 논의되고, 과거와는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조되면서 정부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대학을 선정할 때, 재정지원을 신청한 대학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Kim과 Kim, 2013).

한편 국내의 최근 3년간 대학 모집인원 평균은 4년제 대학이 37만명, 2년제 대학이 24만명으로 총 6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인원은 2020년에 입학 가능한 2001년 출생자 수 55만명 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 다음 해인 2021년의 입학 가능한 출생자는 49만명이며, 그 후로부터 2032년까지 입학 가능한 인구수는 43~49만명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생자 대비 수능 응시비율은 85~90%이며, 출생자 대비 대학진학율은 지난 10여년간 평균 75% 근방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

<sup>†</sup>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20150100호에 의한 것임.

<sup>1</sup>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부교수.

<sup>2</sup> 교신저자: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부교수.

E-mail: kmkim@handong.edu

에서는 대학정원을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4만명,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을 줄여서 총 16만명을 줄일 예정이다. 대학정원이 줄면 44만명 선이 될 것이며, 2023년 학령인구는 43만명이지만 대학진학을 75%를 반영하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학생수는 33만명이다. 2023년의 대학정원은 실제 대학 입학가능한 예상자 수보다 11만명이 많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실제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대학은 살아남기 위하여, 학생이 진학하고 싶도록 교육경쟁력을 유지하고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H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설문조사한 결과와 1학년 1학기 GPA (학업성취도)를 연계하여 각 학년도의 특성과 5년간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고, 찾아진 요소들을 대학에서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입학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파악하여, 고등교육의 목표와 신입생들의 실제적인 필요의 균형을 맞추어 제공 가능한지 고려하여 교양과정 교과목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방안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신입생들의 생활지도를 통해 적절히 시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1절 서론, 2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제시하고 3절은 연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4절은 연구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과 제언을 기술하였다.

## 2. 관련 연구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학교 적응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는 다양하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연구결과를 알려준다.

Kang 등 (2003)은 2002년에 입학한 전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지원이유,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점, 대학생활 중 원하는 정보,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움이 된 것, 동아리활동 참여여부, 이성교제여부, 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직종, 컴퓨터사용 용도, 영어실력을 설문하여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방안 근거를 제공하였다.

Lee (2006)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드러났지만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학환경특성 요인에 대한 대학의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Cho (2010)는 대입 전형방법별 전형요소들이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평균평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입전형방법과 성적분포가 대학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Choi와 Park (2013)은 2011년, 2012년 대학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전형의 학업성취도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학업성취도보다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와 Park (2014)은 2011년에 입학하여 여섯 학기 연속 이수한 학생들의 GPA를 분석하였다. 대상 학생들을 성별과 입학시 모집단위별로 나누어서 입학 후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일반전형 입학자들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Lim (2011)는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요구수준이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전공능력, 기초교양, 언어능력,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요구수준 설문 및 학교생활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요구 수준은 학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문적이고도 사회적인 요구 및 직업준비 요구를 대학에서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학생의 요구와 대학 지원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Lee (2011)는 전형요소는 아니지만 학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입학시기, 전형유형, 출신고교유형, 수능응시여부, 출신지역 등의 비전형요소가 학생의 성과 및 만족도, 탈락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그 결과 여학생의 성과가 남학생의 성과보다 우월하며, 정시모집 학생들의 성과가 수시모집에 비해 뛰어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이 학생의 성과를 높이도록 도우려면 저학년시기에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기초학문 교육과 학생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Jun (2012)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설문 분석하여,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은 모든 변인에서 타 전형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고,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태도에 있어서 행동적 측면의 수업태도는 부족함을 나타내었다고 기술하였다.

Kim과 Kim (2013)은 학교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교참여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 2학년 재학생 총 1,113명에 대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 수준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참여는 진로 결정을 촉진하고 편입 및 전과와 같은 학교 이탈을 방지하면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Min (2013)은 대학 신입생 대상 교육 현황을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검토하여, 대학 신입생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과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규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문을 위한 기초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ark (2013)은 1999~2010년 간 14개 과학고와 15개 외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의 분포가 수능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점수는 여타의 학교 특성을 통제했을 때 모두 해당과목의 표준편차에 음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국/공립학교의 경우가 사립학교보다 그리고 지역단위 선발 학교의 경우가 전국단위 선발 학교의 경우보다 성과가 더 높게 나오며, 대도시 지역의 학교들은 중소도시 또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 보다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Park (2014)은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경험과 수업이해도가 고등학교 때의 수능성취도를 포함한 고등학교의 경험과의 관련성 있는지 여부와, 대학 때의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 및 전공영어 수업이해도가 진로결정 태입과 고용상태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와 취업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학시절의 경험관련 변인 및 수능영어 성취도가 영어전용 전공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Yang 등 (2015)는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낮아질수록 휴학률이 낮아짐을 보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와 2012년부터 확대된 국가장학금이 휴학률이 낮아지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Yoo와 Park (2015)은 통계청에서 2011년도에 조사한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상승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후 첫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각 년도 별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신입생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입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가능한 정보 및 대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 3.2. 연구 문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 교과목 수강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인성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시간활용 분포와 학업성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3. 연구 대상과 절차

H 대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재학 중인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연도별 재적인원과 설문 응답률은 Table 3.1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률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다.

**Table 3.1** Number of enrolled students and number of respondents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756	742	824	875	848
# Respondents		520	601	799	703	678
Ratio		68.8%	81.0%	97.0%	80.3%	80.0%
Gender	M	305	318	396	335	336
	F	215	283	339	368	342

조사가 이루어진 H 대학교의 교양과정 교과목은 10개의 영역 (신앙, 인성, 전산기초, 실무영어, 언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술, 전공기초, 기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1학기 수업만족도를 5점 척도 (리커드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5개 영역 (신앙, 전산기초, 인문계열, 자연계열, 전공기초)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성교육은 3개의 영역 (인성교육 교과목 만족도, 팀 모임 만족도, 생활관 만족도)으로 나뉘어서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H 대학은 신입생들은 전원이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0명 내외의 신입생들이 한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팀원이나 팀교수와의 소통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반면 시간 활용 분포로 알아본 생활 적응도는 10개 영역 (취침시간, 수면시간, 과제시간, 공부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특별활동 시간, 교내외 근로시간, 봉사 및 여가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가장 많은 시간에 대한 분포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2013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학업 성취도는 설문시점이 1학년 11월이므로 1학년 1학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족도 또한 1학기 만족도만을 비교하였다.

### 4. 연구 분석 결과

#### 4.1. 교양과목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각 연도별로 대표적인 교양과목 5개 영역의 수강만족도 (5점척도)와 학업성취도 (GPA)와의 분산분석결과는 Table 4.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4.1의 결과에서 신앙관련 과목은 학업성취도가 수업만족도 따라 조사한 모든 년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기초, 자연계열, 전공기초 교과목에 대해서도 거의 매년 수업만족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과목들은 기초학력이 필요한 과목으로 고등학교 때의 학업능력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을 파악되어 추후 입학성적과 1학기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1** ANOVA for the differences of GPA due to class satisfac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Faith Course	2.784 (0.026*)	3.223 (0.012*)	8.205 (0.000**)	6.475 (0.000**)	5.613 (0.000**)
Computer Basics	1.707 (0.147)	3.507 (0.008**)	2.209 (0.067)	3.992 (0.001**)	10.130 (0.000**)
Humanity Course	1.434 (0.222)	3.049 (0.017*)	1.628 (0.167)	2.505 (0.029*)	1.806 (0.128)
Natural Science	1.865 (0.115)	5.914 (0.000*)	7.185 (0.000**)	4.032 (0.001**)	7.353 (0.000**)
Major Foundation	3.880 (0.004**)	4.548 (0.001**)	3.053 (0.017*)	3.307 (0.006**)	9.425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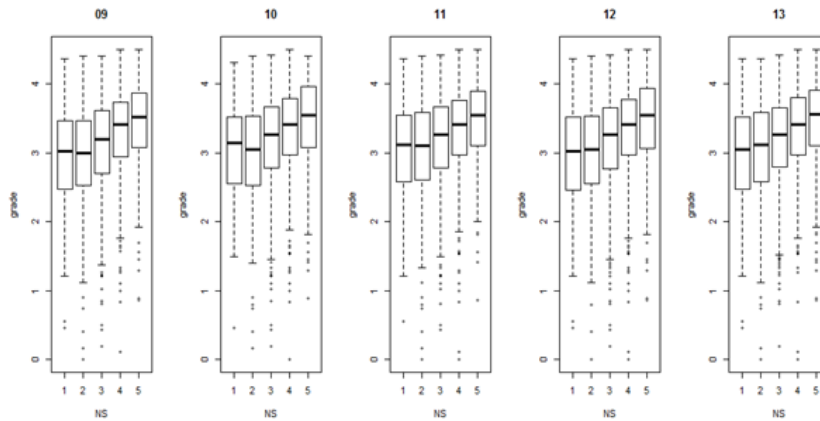
\* $p < 0.05$ , \*\* $p < 0.01$

학업성취도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만족도와의 상관계수로 Kendall의  $\tau$ 값은 Table 4.2와 같이 제시하였다. Spearman의  $\rho$ 값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Table 4.2** Kendall's  $\tau$  for GPAs and class satisfac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Faith Course	0.128 (0.000**)	1.111 (0.000**)	0.042 (0.241)	-0.023 (0.420)	0.118 (0.000**)
Computer Basics	0.088 (0.008**)	0.116 (0.000**)	0.088 (0.007**)	0.044 (0.110)	0.187 (0.000**)
Humanity Series	0.081 (0.022*)	0.077 (0.022*)	0.103 (0.009**)	0.013 (0.657)	0.072 (0.000**)
Natural Science	0.098 (0.005**)	0.150 (0.000**)	0.206 (0.000**)	0.077 (0.007**)	0.197 (0.000**)
Major Foundation	0.104 (0.002**)	0.116 (0.001**)	0.108 (0.002*)	0.069 (0.013*)	0.174 (0.000**)

\* $p < 0.05$ , \*\* $p < 0.01$



**Figure 4.1** Box-plots of GPAs of natural science classes from 2009 to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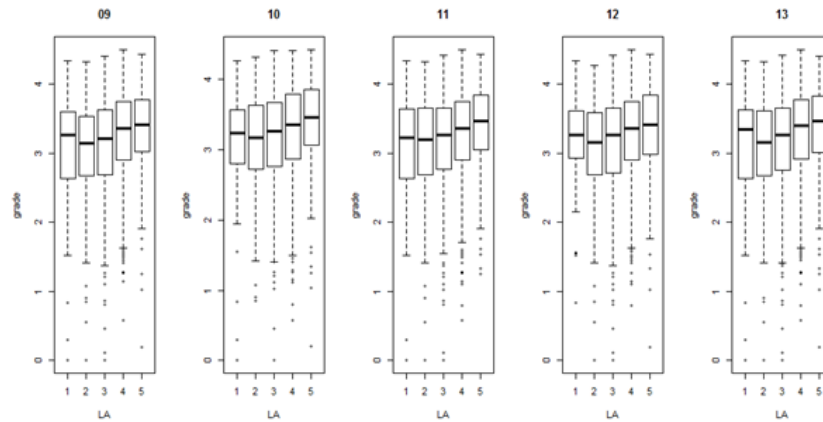


Figure 4.2 Box-plots of GPAs of humanity course classes from 2009 to 2013

2011년 신앙과목과 2012년의 신앙, 전산기초, 인문계열 과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학업성취도와 수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igure 4.1에서 자연계열 수업은 조사한 5개년도 모두에서 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학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앙교과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Figure 4.2의 인문계열 과목 수업에 대한 상자그림 (box-plot)에서는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사이의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문계열 과목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학력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입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 인성교육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H 대학의 인성교과목은 공동체리더십훈련 (6학기 필수), 한동인성교육, 사회봉사 (4학기 필수), 교양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동체리더십훈련은 매년 35~40명 안팎의 인원이 한 개의 팀을 형성하여 팀 담당교수와 일 년을 함께 보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교수와 학생간의 교제를 통하여 인성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팀 모임 만족도는 이 교과목의 만족도와 팀원과의 관계, 팀교수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나머지 3개 교과목의 만족도는 인성교과목 만족도로 분류하였다.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생활관에 의무 입주하며, 생활관 방 배정이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관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H대학교 내부연구에서는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인 팀은 신입생들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팀원과의 관계, 팀교수와의 소통, 그리고 생활관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Table 4.3은 각 영역에서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4.3 ANOVA for the differences of GPA due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Character Building Course	1.337 (0.255)	1.028 (0.392)	1.065 (0.373)	2.576 (0.025*)	1.170 (0.323)
Relationship with peers	.236 (0.918)	.951 (0.434)	1.459 (0.213)	2.731 (0.028*)	.712 (0.584)
Communication with professor	.898 (0.465)	2.354 (0.053)	.305 (0.875)	1.532 (0.191)	3.717 (0.005)
Dormitory Satisfaction	1.472 (0.209)	1.171 (0.322)	1.242 (0.288)	1.276 (0.278)	.945 (0.437)

\* $p < 0.05$ , \*\* $p < 0.01$

Table 4.3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년도에서 학업성취도는 인성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Table 4.4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성교육 교과목, 팀원과의 관계, 팀 교수와의 소통, 생활관 만족도에 대해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성 교과목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4.4** Average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from 2009 to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mean	F	prob
Character Building Course	3.285	3.160	3.136	3.215	3.142	3.164	2.87	.022*
Relationship with peers	3.296	3.166	3.132	3.220	3.142	3.189	1.35	.249
Communication with professor	3.295	3.166	3.132	3.221	3.142	3.189	.02	.937
Dormitory Satisfaction	3.293	3.166	3.131	3.224	3.141	3.189	.29	.478

\* $p < 0.05$

**4.3. 시간활용 분포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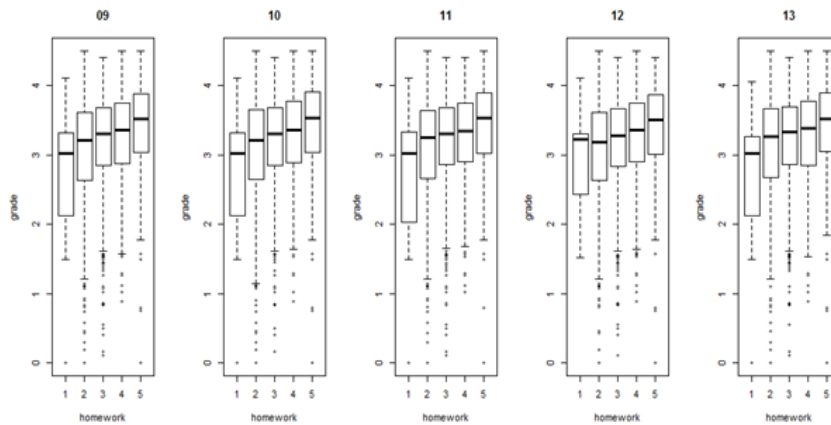
대학생활 적응도에 대해 조사한 10개의 영역 중에서 학업 성취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5개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하루 수면시간은 3~5시간, 5~7시간, 7~9시간,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씩 각 영역에 사용한 시간을 기준 (0시간, 1~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였다. Table 4.4는 각 범주별로 학업 성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5** ANOVA for the differences of GPA due to time efficiency

	2009	2010	2011	2012	2013
Sleep	.237 (0.870)	1.138 (0.333)	2.360 (0.071)	1.602 (0.188)	3.144 (0.025*)
Homework	.980 (0.418)	3.670 (0.012*)	3.604 (0.007**)	5.740 (0.000**)	4.711 (0.001**)
Studying except HW	1.017 (0.398)	.311 (0.871)	3.659 (0.006*)	4.788 (0.001**)	3.037 (0.017*)
Computer Use Time	2.016 (0.91)	3.276 (0.011*)	1.400 (0.233)	4.634 (0.001**)	4.324 (0.002**)
Volunteer	.397 (0.811)	1.285 (0.274)	1.131 (0.343)	2.436 (0.046)	.900 (0.441)

\* $p < 0.05$ , \*\* $p < 0.01$

과제와 수업이외의 공부시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대체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제외한 컴퓨터 사용시간에 따라서도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Figure 4.3과 4.4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이외의 공부시간이 많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3** Box-plots of GPAs due to home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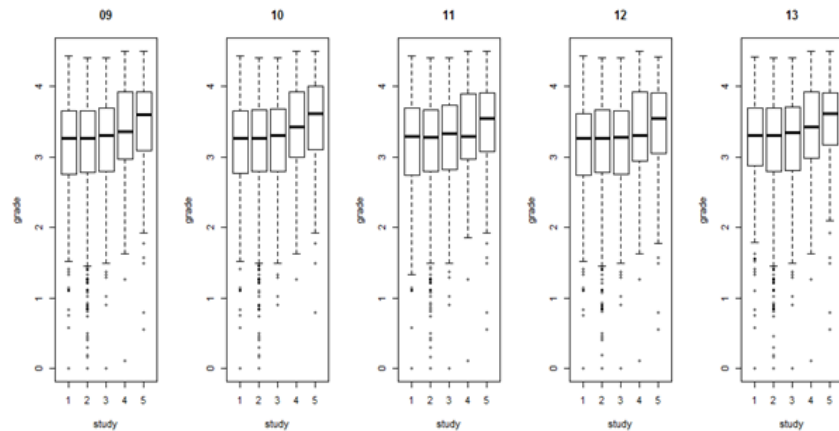


Figure 4.4 Box-plots of GPAs due to studying

이외의 결과에서 학생들의 생활 패턴은 조사한 5개년도 결과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오전1시에서 3시 사이이며 보통 5~7시간 수면을 취하고 과제를 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 소비하며 컴퓨터 사용시간은 주당 6~10시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이 2012년과 2013년에는 주당 1~5시간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2012년도 급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13년에 처음 조사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6~10시간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특별활동이나 여가활동시간으로는 주당 1~5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내외 근로나 봉사로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파악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시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과목의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다. 둘째, 인성교육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셋째, 시간관리 분포와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다. 수업이나 과제 이외의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았으며, 여가활동이나 봉사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검증을 기반으로 신입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지원할 것을 제언한다. 교양과정 교과목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공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하며, 신입생들의 생활지도를 통해 적절히 시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첫째, 교양과정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교과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수업진행 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법 강화, 수업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수강생들을 위한 지원하는 튜터링 확대와 예습 복습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강의 지원이다. 이와 더불어 비교과과정



으로는 기초학력 증진을 돕는 예비대학이나 방학 중 캠프 운영, 수강 신청 전에 개설 교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원활화, 시간표 작성 시 도와주기, 2학년이 되면서 전공을 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H대학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1학년 동안 전공탐색을 할 수 있는 전공별 소개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신입생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려면 교수나 선배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이나 멘토링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문제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지 않도록 도우는 상담프로그램 활성화와 팀 담당교수의 신입생 밀착지도 및 팀 선배들의 일대일 멘토링이다.

셋째, 학생들의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1학년 동안 의무 생활관 입주를 하는 H대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관에서 일찍 취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과 과제하는 시간외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문에 열정을 가지도록 도우는 학술동아리 활성화, 선배들의 실제적인 시간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진행, 수업시간이나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스마트폰을 끄고 생활하는 습관이 유익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5년간 설문조사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재학기간 동안 참여한 교과활동, 비교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재학 시의 활동과 학업성취를 취합하여 졸업 후 진로방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다.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진로방향과의 관계가 파악된다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Cho, J. S. (2010). The influence analysis of admission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1**, 729-736.
- Choi, H. S. and Park, C. (2013).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admitted by admissions officer selection: K university ca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1149-1157.
- Choi, H. S. and Park, C. (2014).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and selection method based on latent growth model: K university ca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411-422.
- Jun, K. A. (2012). School life of the freshmen selected by admissions officers scree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 508-517.
- Kang, H. J., Lee, W. G. and Lee, J. H. (2003). An analysis on the survey for the actual conditions 2002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4**, 307-318.
- Kim, S. and Kim, J. E. (2013). Analysis research for the effect of school engagement on learning outcomes and related factors in higher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4**, 73-96.
- Lee, G. H. and Lim, S. U. (2011). The effects of educational needs of engineering studen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 33-42.
- Lee, K. S. (2006). A study on the influencing to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Review*, **18**, 223-251.
- Lee, S. W.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non-screening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forma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 1863-1883.
- Min, C. G. (2013). Milestone seminar for freshman – a case instruction and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 295-330.
- Park, H. S. (2014). Relationships among students'3rd year high school characteristics, college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career decision type, and employment statu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442-452.
- Park, K. W. (2013). The impacts of ability distribution on academic performance: with an emphasis on the results of science &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CSA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4**, 85-105.

- Yang, H., Choi, J. S., Han, J. T. and Jeong J. (2015). Influence of tuition and scholarship on the stop-out rate: An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regress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631-638.
- Yoo, J. and Park, C. (2015). The effects of th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o the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23-139.

## A case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during freshmen year<sup>†</sup>

HeonJoo Kim<sup>1</sup> · Kyungmi Kim<sup>2</sup>

<sup>12</sup>Global Leadership School, Handong Global University

Received 31 July 2015, revised 30 September 2015, accepted 19 October 2015

### Abstract

Recently many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try to improve the education excellence, because there are some criticisms on the readiness of graduates for the needs of companies.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for freshmen during last 5 years at a certain university (so-called H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y some requirements for freshmen to meet their needs to upgrade their capability throughout bot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 activity and also study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We also propose some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 activity for freshmen to meet their needs for the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 and to have satisfactory college life.

*Keywords:* Achievement, character building curricular, college life, liberal-arts curricular, quality control of education.

---

<sup>†</sup>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o. 20150100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Research Grants.

<sup>1</sup> Associate professor, Global Leadership School,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37554, Korea.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Pohang 37554, Korea.  
E-mail: kmkim@handong.edu